

전남도, 철강산업 맞춤형 지원... 경쟁력 회복 총력

광양만권 산업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 42개사에 8억 수출기업 물류비 긴급지원·정부 추정 국비 증액 건의

전남도가 글로벌 경기 침체와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운 지역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2026년 지역산업 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상 기업 42개사를 선정해 본격 지원에 나선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3월까지 사업 공고를 통해 광양만권 산업위기지역 철강·금속 분야 및 전·후방 산업을 영위하는 중

소·중견기업을 선정했으며, 총 8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분야별도 기업 경쟁력 강화와 매출 회복을 위한 맞춤형 특화지원에 대상에스엔엘, 광양테크 등 12개 기업이 선정돼 생산·가동 안정화, 기술·디지털 전환(DX) 고도화, 수주·사업화 지원 등에 기업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제품 고급화 등 기업 수요에 맞춘 기술

사업화 지원에 동양기업, 픽스 등 30개 기업이 선정돼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인증, 지식재산(IP) 전략 수립, 마케팅, 상품기획 등에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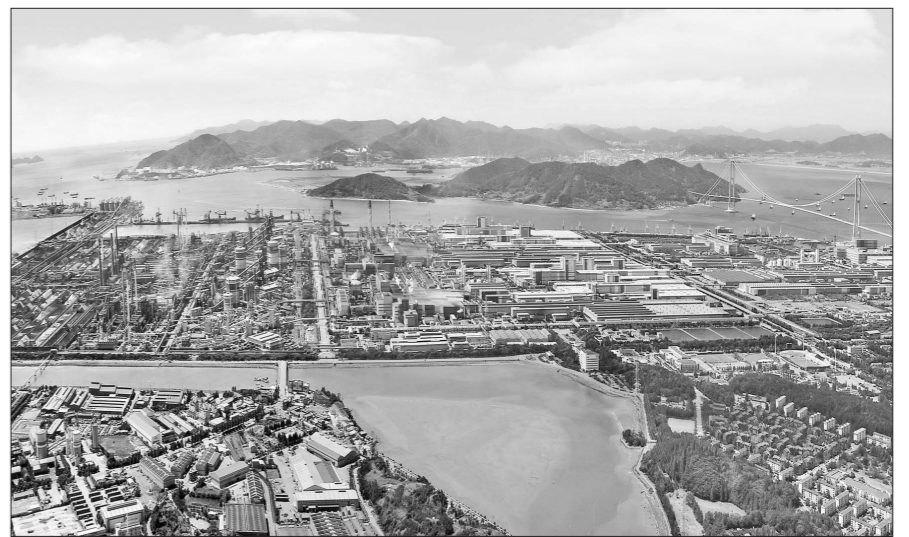
전남도는 또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가중된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산업위기지역 철강 수출 기업에 최대 1000만원의 물류비를 긴급 지원하고 있으며, 수혜 기업 신청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고 있다.

전남도는 중동 상황에 따른 정부 추경에 국비 증액을 건의했으며, 반영 시 물류비 지원을 넘어 물류시스템 개선까지 광범위

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광양만권 HRD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한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도 확대 추진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추경에 반영된 수출 바우처,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주요 사업을 적극 안내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과장은 "지역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회복을 위해 생산, 기술, 판로, 물류까지 전방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의 생산 안정과 매출 회복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철 기자 holbul@gwangnam.co.kr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

광양 중동 민간임대아파트 '정상화' 눈길

시공사 법정관리에도 시행사 빠른 대응 공사 재개 광양시·HUG 협조 공정 재가동... 7월 입주 목표 최선

시공사의 법정관리로 중단됐던 광양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빠르게 공사를 재개하며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광양시 중동 일원에서 376세대 규모 민간임대아파트를 추진 중인 시행사 연케이앤씨는 시공사 유담건설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 이후 공사 중단 위기를 겪었다.

유담건설은 경영난이 심화해 지난해 10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공사 지연이 반복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

이에 시행사는 시공사의 시공권 포기과 공사비 정산 문제를 정리하고 광양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사 재개 절차를 진행했다.

현재 현장은 정상적인 공정에 들어선 상태로 당초 계획된 오는 7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통상 시공사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사의 빠른 결단과 대응은 업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 지연으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진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 관리와 품질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보증금 세대별로 다시 정비해 계약자 보증금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예정된 일정에 맞춰 준공과 입주 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재호 기자 djawody0316@

외국인 늘자 광주·전남 고용 '압박 신호'

저숙련·서비스 일자리 감소 우려... "내국인 보호 정책 필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확대되면서 광주·전남 노동시장에도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인력난 완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내국인 고용 감소라는 부정적 영향이 동시에 확인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최근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정호진·김영현)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 생산에는 기여하지만 내국인 임금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 측면에서는 내국인 일자리를 일부 대체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특히 저숙련·서비스 부문에서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 같은 결과는 광주·전남 지역에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광주·전남 외국인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남 영암군 자동차 부품 공장과 조선 관련 기업들이 밀집한 이 소도시에서 외국인은 전체 주민의 18.4%를 차지한다. 경기도 안산시와 함께 전국에서 외국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원도, 진도 등 수산업 지역도 10%대에 육박한다. 광주 광산구는 10년 사이 외국인 주민이 2.8배 증가했고, 고흥·해남·신안 등 농어촌 지역에서는 4배에서 7배까지 늘었다. 2023년 기준 실질 취업 외국인 기준으로 광주는 약 2만명(전체 취업자의 2.5%), 전남은 약 4만 3000명(4.1%)에 달한다. 영암은 취업자 6명 중 1명이 외국인이다.

광주 광산구와 전남 영암군 등 제조업 밀집 지역에 외국인 노동력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원도·진도·신안·고흥 등 남해안 지역에서는 어업과 농업 분야 비중이 높다.

두 지역의 외국인 노동시장 역할은 성

격이 다르다. 전남 농어촌 지역에서는 내국인 청년의 빈자리를 채우는 '공백 보완형'에 가깝다. 반면 광주 광산구나 전남 영암처럼 공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기존 내국인 근로자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대체형'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한은 연구가 밝힌 또 하나의 발견은 '공간적 파급효과'다. 한 지역의 외국인 비중 상승이 인접 지역의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영암에 집중된 외국인 노동력이 나주, 목포, 함평 등 인접 시군의 내국인 고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책이 시군 단위로 분절되면 파급효과를 통제하기 어렵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임금과 고용의 반차이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내국인 임금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일부 서비스업에서 소폭 상승 효과를 보였다. 반면 내국인 고용에는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기업이 고용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외국인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내국인 인구 유출이 증가하는 경향도 확인된다. 광주와 전남처럼 생활권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력 확대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거·교육·의료 지원과 함께 저숙련 내국인을 위한 직업훈련 및 전직 지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노동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입 확대와 함께 내국인 고용 보호를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해윤 기자 nab@gjdream.com



저탄소농산물 인증확대 업무협약. 활기엔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27일 도청 서재발실에서 이석형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조광철 전남친환경농업협동조합장과 유통·소비 촉진 등을 위한 '저탄소농산물 인증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도청

광주·부산연구원, AI 남북 경제권 공동연구 시동

특화 AI 언어모델 성과 공유 공동연구 협력 기반 등 구축

광주연구원이 영호남 거점 정책연구기관과 손을 맞잡고 인공지능(AI) 기반 도시혁신과 남북 경제권 구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광주연구원은 최근 부산연구원에서 '남부 경제권 영호남 거점도시 정책연구원 연구 협력 기반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 전략을 비롯해 지역 정책연구에 특화된 언어모델 구축까지, AI를 축으로 한 도시혁신 공동연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도시 글로벌화 전략' 세션에서는 부산연구원 허용수 선임연구위원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허 연구위원은 인·알부 서비스업에서 소폭 상승 효과를 보였다. 반면 내국인 고용에는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기업이 고용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외국인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내국인 인구 유출이 증가하는 경향도 확인된다. 광주와 전남처럼 생활권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력 확대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거·교육·의료 지원과 함께 저숙련 내국인을 위한 직업훈련 및 전직 지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노동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입 확대와 함께 내국인 고용 보호를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연구원은 최근 부산연구원에서 '남부 경제권 영호남 거점도시 정책연구원 연구 협력 기반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연구원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비즈니스·기술·인재를 3대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국제 자유 비즈니스도시, 디지털 첨단 산업도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글로벌 교육도시 등 4대 방향을 제시했다. 발표 이후에는 남북 경제권 구축과 권역별 매개도시 조성 방안을 둘러싸고 지역 전문가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2부 '지역 정책연구 맞춤형 언어모델 구축' 세션에서는 부산연구원 이상민 연구원이 'AI 에이전트 시대의 도래와 바이브 코딩(Vibe Coding)'을 통한 연구개발(R&D) 혁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스스로 판단하고 도구를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

전트'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경쟁력의 중심이 단순한 모델 성능에서 데이터 확보, 통제 체계, 시스템 간 연계 역량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자연어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실무 문제를 해결하는 '바이브 코딩' 방식을 소개하며, 한국평가데이터(KoDATA)의 기업 데이터와 ESG 정보를 통합한 웹 기반 데이터 탐색 시스템을 구축 사례를 공유했다.

발표 이후 질의응답에서는 AI 시대의 연구 윤리와 연구자의 전문성, 데이터 활용의 책임성 등을 두고 양 기관 연구자 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글로벌 게임 현지화 지원 콘진원, 참가 프로젝트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국산 게임의 글로벌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게임 현지화 지원(해외 이용자평가)' 사업 참가 프로젝트를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 해외 이용자평가 시 회차별 최소 100명 이상의 현지 이용자가 참여하는 평가를 포함해 총 3회의 해외 이용자 평가(Focus Group Test, 이하 FGT)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30개 내외의 게임 프로젝트가 글로벌 출시 전 현지 적합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콘진원은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게임의 현지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북미, 유럽,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5개 권역을 대상으로 해외 이용자 평가(FGT)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권역별 이용자 특성과 선호를 반영한 게임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프로젝트에는 오프라인 1회와 온라인 2회 등 총 3회의 해외 이용자 평가(FGT)가 제공된다.

특히 온라인 평가는 회차별 최소 100명 이상의 현지 이용자가 참여하며, 실제 이용 환경에서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콘진원은 게임 특성에 맞는 현지화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진단을 통해 평가를 설계하고, 현지 주요 이용자를 대상으로 언어, 난이도, 몰입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별 현지화 수준과 시장성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담은 결과 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내 게임개발사가 북미, 유럽,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다양한 권역의 이용자 반응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기존 진출 권역 뿐 아니라 신규 시장 확대 기회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해외 직접 출시를 희망하는 국내 게임개발사가 개발한 게임 프로젝트 가운데 공모일 기준 신청 권역에 정식 출시 이력이 없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다.

다른 해외 권역 또는 국내 출시 이력이 있더라도 신청 권역에 출시한 이력이 없고, 해외 이용자평가(FGT)를 진행할 수 있는 '플레이어블 빌드'를 보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유현석 콘진원 원장 직무대행은 "해외 이용자평가는 글로벌시장 진출 전 게임의 완성도와 현지 적합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국내 게임개발사가 실제 이용자 반응을 반영해 완성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지화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현정 기자 pose007@gwangnam.co.kr

광주시, 제과제빵 농식품가공 창업교육 운영

5회 과정 창업역량 강화...내달 6일까지 모집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제과·제빵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농식품 가공 아이디어 교육'을 다음달 13일부터 27일까지 총 5회 과정으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반 교육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교육생이 직접 레시피를 개발하고 이를

제품으로 구현해 상품화까지 이어가는 창업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 과정은 △제과·제빵 기초 이론 및 제품 기획 △실습 중심의 제품 개발 △조별 제품 테스트 및 상품성 평가 등으로 운영된다. 특히 교육생이 제품을 직접 개발하고 개선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도록 설

계해, 상품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모집 인원은 20명으로, 제과·제빵 분야 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6일 오후 4시까지이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서류 심사를 통해 교육생을 선발하고, 결과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